

## 교수와 학생의 政治 參與

吳 河 根  
(圓光大 國語教育科)

대학은 이미 象牙塔이 아니다. 아니 대학이 일찌기 상아탑으로 안주한 일이 없다. 학문의 본보기인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반정부적인 민중 선동으로 사형을 받았다. 성균관은 지성인의 시위의 온실이었다. 대학은 상아탑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대학이 학문의 場인 동시에 교육의 장이요,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동시에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인 이상 상아탑이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대학은 관념본자의 도피처도 아니요 비겁자의 수용소도 아니다. 대학은 현실에서 숨는다. 그러므로 산 속 깊이 은거하고 있는 상아탑이 아니라 도시에 노출된 현실의 감시탑일 수밖에 없다.

대학인은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참여한다. 대학인은 靜寂主義 속에서 성장만을 할 수 없다. 현실에서 그 이론을 다지고 현실에 그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저해하거나 이상에 배치되는 현실에 도전해야 한다. 아니 현실의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현실의 악을 처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학인은 학문에만 전념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설령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한다 해도 그 군대와 함께, 아니 그 군대보다 앞장 서서 싸우는 것이 참된 대학인이요, 참된 교육이요, 바른 학문이다. 그것이 시민 정신의 교육이요, 민주주의의 학문이다. 이를 체계화하는 자가 학자요, 이를 가르치는 자가 교육자이다. 대학에서 현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참여의 증을 울리지 않는다. 대학에서 학점이나 학위에 아첨한 자는 사회에서 급력과 지위에 아첨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난장판은 아니다. 분명 대학은 현실에서 숨 쉬고 있지만 이상을 그리는 학문과 교육의 장이다. 이 이상 세계는 질서의 세계이다. 무질서란 방편으로 질서란 목적에 이를 수 없다. 대학은 원칙에 위배되는 현실에 항거하는 것이지, 미주알고주알 감 내라 밤 내라 날날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현실 참여는 현실에의 집착이 아니라 이상 추구의 한 방편이다. 대학은 정치가의 유세장도, 상인의 도매기 시장도, 문화인의 작품 전시장도 아니다. 대학의 정치 참여는 인류 양심의 본질적인 참여이지 테크니시언의 비본질적인 참여가 아니다. 대학은 정치 지식의 공급처이지 그 시행처가 아니다.

‘민주주의’ 앞에는 ‘자유’ 이외의 어떠한 수식어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의 행정적 민주주의니 한국적 민주주의니 하는 것이나 인도네시아 스카르노의 교도적 민주주의니 하는 것은 독재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올 수 있을까. ‘시인정치가?’ 그럴 듯하다. “시인이자 정치가가 정치를 한다”라고 어느 시인은 「詩人共和國」을 노래했다. 시의 아름다움은 정치에도 아름다움을 불러 넣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 “시적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말은 제법 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을 읊조렸을 뿐 현실이 아니다. 시와 시인은 다르다. 지난 정권 아래에서 그 존재 가치의 희소성을 자랑하던 감투 쓴 몇몇 시인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 감투 때문에 고향의 아름다움을 읊조리면서 고향 사람을 헐 값으로 팔아넘기는 시인도 있다. ‘교수 정치가’, ‘학생 정치가’란 용어는 아예 너무나 낯설다. 사실 이는 언어에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만든, 모순 어법에 의한 조어에 불과하다.

12대 국회는 의원의 이권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二重職을 인정하고 이를 권장하여 직업을 알선하기까지 했다. 아예 이들이 직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의를 오후에 소집했다. 그런데도 지역구도 아닌 전국구의 몇몇 교수 출신 의원은 대학에 휴직계를 내었다. 딴 직업은 모두 괜찮다는데 교직만은 역시 안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그들은 정치인 명부의 어느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가? 정치가로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몇인가? 플라톤의 哲人政治論이라 해서 철학자가 곧바로 위대한 정치인이란 뜻은 아니다. 이 철인은 35년간의 전인 교육과 철학 연구를 마치고도 또 15년간 이론이 아닌 정치 실무를 마친 뒤에 그것도 집단 지도 체

제의 일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쩍 거리는 금배지와 흰 책 가방은 먼 거리에 있다. 설령 그 금배지를 가슴에 단다 해도 그것은 반짝거리기를 그치는 것이다.

‘소위’, ‘이른바’로 이끌어지는 직업인이 있다. ‘소위 교육자’, ‘소위 학자’, ‘소위 종교인’이 그것이다. ‘이른바 정치인’, ‘이른바 경제인’이란 어법은 예사 경우에는 없다. “교직은 天職이다”라는 낡은 어구는 쓰레기 하치장에 매물된 지 오랜데도 교육자는 ‘소위 교육자’로 시작되는 오명을 뒤집어쓴다. “이제는 개도 교육자의 무엇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변명해 본들 쓸 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위’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무의식 속에 교직에 대한 신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소문이 퍼지게 마련이다. 「데카메론」이나 「프랑스 야화집」에 있는 하고 많은 성적자의 탈선은 성적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적자가 그랬으니까 이야기거리로 성립된 것이다. 우리나라 민담과 속담에 있는 승려의 탈선은 승유척불의 잔재가 아니라 승려의 입장에서 그랬으니까 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교수’와 ‘역시 정치가니까’의 어법에서 그 孤高性과 通俗性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둘이 함께 결합하는 동시성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킬 박사과 하이드氏가 될 것이다. 흑백논리를 무조건 배격할 수는 없다. 半生半死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삶이면 삶이고, 죽음이란 죽음이다. 반죽음이란 삶이다. 마찬가지로 교수면 교수고, 정치가면 정치가이다. 半敎授半政治家란 이상하고도 야릇하다. 그것은 혹시 기회주의자의 또 다른 이름인지 모르겠다. ‘정치적인’ 언변으로 ‘학자적인’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법적으로 대학 교수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이라 해서 모두가 정치가가 되

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교수로서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지혜를 빌려 주려 함이지 정당의 힘을 빌어 오기 위함이 아니다. 교수는 정당을 개진하는 것이지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 키를 조정하고자 하면 즉시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양심이요, 성공의 지름길이다. 대학은 정치가의 플랫폼도 아니요, 그 이용물도 아니다.

‘교수 정치인’이 아예 언어 도단이라면 정치교수는 비양심이다. 정부에서 악의적으로 반체제교수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이른바 어용 교수나 보직 지향 교수를 지칭한다. 대학에서 보직은 교육 행정이지 교육 정치는 아니다. 교육행정학은 있어도 교육정치학은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다. 정치할 곳이 그렇게 없어서 대학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할까? 이에 비하면 차라리 교수 정치인이 양심적이다. 이런 사람은 대학의 힘을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의 힘을 대학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학생 정치가’ 역시 어불성설이다. 혹시 형편상 미처 학위를 지니지 못한 기성 정치인이 야간대학에 적을 두거나 더 높은 앉을 위하여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 학생이면서 정치가란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정치가 학생’이다.

학생이란 실제 나이야 어찌든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아직 어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필요하다. 학생은 미완성체이다. 미완성의 인간이 남을 지도하겠다고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남득하기 어렵다.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신민당의 추첨 후보는 대학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이도 벌써 30대 후반이었던 그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그때까지 대학에 적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학칙에 깨끗이 승복했다. 학칙은 대학 생활의 보편적인 척도인 것이다. ‘정치 학생’ 역시 이른바 어용이거나 사꾸라와 진배없는 이름이다.

대학인은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은 온실이 아니요, 대학생은 온실 속의 연약한 꽃 나무가 아니요, 대학 교수는 온실을 지키는 원정이다. 원정은 그 꽃 나무를 정원에서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그 정원은 아무나 들락거리며 꽃 나무를 꺾지 못하게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요, 그 꽃 나무는 아직 들판이나 산 비탈에 살 만큼 기후나 토양에 적응이 덜 된 꽃 나무요, 그 원정은 꽃 나무를 사고 파는 장사꾼을 견입할 수 없는 원정이기 때문이다. \*